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CALL

가제 : 부름

저자 : Peadar O'Guilin

출판사: David Fickling Books

발행일: 2016년 8월 30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원한으로 가득한 낯선 세계 요정들의 예고 없는 부름, 그 즉시 시작되는 목숨을 건 추격전

열 살이 넘은 아이들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사를 결정짓는 날을 맞이한다. 주어지는 시간은 단 3분, 원한에 맺힌 요정 ‘쉬’가 부르는 순간, 곧바로 목숨을 건 사냥이 시작된다. 잔인한 쉬들은 ‘그레이 랜드’라는 낯선 세계에서 아무 때나, 아무나 사냥감을 고를 수 있다. 이들에게 사냥감으로 부름을 받으면, 꼬박 하룻동안 맹렬한 추격을 피해 스스로 목숨을 건져야 한다. 그레이 랜드에서는 그 시간이 하루지만 인간 세상에서는 고작 3분 40초, 그 짧디 짧은 시간 동안 오로지 혼자 힘으로 도망을 가든, 숨든 쉬에게 붙들리지 않아야 남은 생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만 가장 잔혹한 존재인 쉬, 그들이 제멋대로 벌이는 피 말리는 추격전은 언제, 어떤 순서로 시작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네사가 모든 아이들의 운명을 결정 짓는 3분 40초의 비밀을 알게 된 건 열 살 생일날이었다. 어른들은 산타클로스의 존재를 숨기듯 어린 아이들에게 언젠가 쉬가 부르면 생사를 건 추격전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퐁퐁 숨겨왔다. 네사도 다정한 엄마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세상은 아름다운 곳으로만 생각하며 살았지만, 생일날 엿들은 부모님의 대화는 잔혹한 진실과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했다. 네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어야 한다고 아빠를 설득하는 엄마와 몇 년 동안은 그냥 모르게 두자고 울먹이는 아빠의 대화는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다. 네사는 아빠의 입에서 “다리가 저래서야 제대로 도망가지도 못할 거야.”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부모님이 언쟁을 벌이는 주제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져 묻는 네사에게 아빠는 울면서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열 살 생일이 지나면 모든 아이들이 쉬라는 존재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며, 그 추격전에서 살아남아야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오빠가 어느 날부터인가 사라져버린 이유도 이 잔인한 사냥에서 쉬에게 붙들렸기 때문이라는 사실까지, 어린 네사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벅찬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성치 않은 다리를 가졌지만 살아 남겠다는 열망은 누구보다 뜨거운 소녀, 그녀의 운명은?

네사의 왼쪽 다리는 소아마비로 보기 싫게 비틀어졌다. 부모님을 포함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네사가 쉬의 부름을 받으면 추격이 시작되자마자 붙잡히고 말 거라고 확신했다. 부모님이 쉬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눈물을 멈추지 못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사람들은 네사가 다리를 절뚝 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거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주고 받기도 했다. 그러나 엄마아빠에게 쉬가 벌이는 잔인한 사냥의 진실을 들은 네사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심을 했다. 반드시 살아 남을 거라고, 절대로 오빠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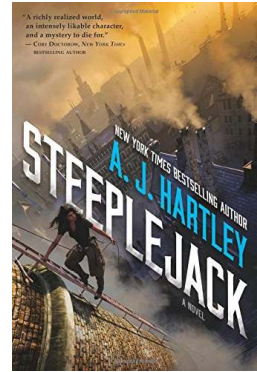
그로부터 4년 후, 네사는 언제 부름을 받을 지 모르는 십대 아이들을 모아놓고 쉬의 사냥에서 도망가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교에 친구 메건과 함께 매일 열심히 등교했다. 생존 확률은 열 명 중 한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섬뜩한 이야기가 나돌고, 학교에서는 쉬의 정체와 능력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들을 가르치며 언제가 될지 모르는 운명의 날에 최대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성치 않은 다리로 학교를 오가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네사는 남들과 다른 걸음걸이를 놀려대고 비아냥대는 학교 아이들과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눈길이 가는 잘생긴 남학생 안토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기가 영 힘들었지만, 4년 전 굳게 다짐한 마음만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절대 속수무책으로 쉬에게 당하지 않으리라는 결심은 오히려 점점 굳건해졌다.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 학생들 사이에서 긴장감은 날로 깊어만 간다. 몸이 건강한 아이들도 대부분 힘없이 붙들린다는 마는 쉬의 사냥터에서, 그 짧은 시간 안에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

사람의 목숨을 장난스레 가지고 노는 요정들과 그 긴박한 상황에서 피어나는 우정과 사랑, 복수심이 빚어낸 갈등을 그린 흥미진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피아더르 오길린(Peadar O'Guilin)은 아일랜드 북서부의 도니골 지역에서 자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어릴 때부터 단편과 각본을 썼다. 스탠딩 코미디언, 프랑스어와 이태리어 번역가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컴퓨터 회사에 근무하면서 틈틈이 글을 쓰고 있다.

제목 : STEEPLEJACK
가제 : 굴뚝 청소부
저자 : A. J. Hartley
출판사: Tor Teen
발행일: 2016년 6월 14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흑인과 백인의 삶이 극명히 갈린 19세기 도시, 최정예 스파이가 된 흑인 굴뚝청소부 소녀

19세기 남아프리카의 거대한 산업 도시 바-셀렘에 사는 사람들은 피부 색깔에 따라 하늘과 땅만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다. 백인들은 호화로운 집에서 안락하게 살았고, 앵글릿과 같은 라니족 출신의 흑인들은 백인들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거나 도시 곳곳에서 허드렛일을 도맡아 하면서 푼돈을 벌었다. 열일곱 살 앵글릿은 흑인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도 가장 위험천만한 일로 생계를 이어갔다. 뾰족한 탑의 꼭대기나 하늘 높이 치솟은 지붕 위로 올라가 굴뚝이나 연통을 고치는 일이었다. 앵글릿은 흑인과 여자를 무조건 무시하는 세상을 비웃으며,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다면 웬만한 전문가들도 무서워서 피하는 초고층 지붕에도 망설임 없이 올랐다. 그러나 도시에 수상한 살인과 도난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앵글릿은 첩탐보다 더욱 위험천만한 곳에 내던져진다. 탐욕에 젖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어두운 거래, 그 사이에 어쩌다 끼어버린 것이다.

모든 사건은 앵글릿에게 굴뚝 청소 일을 배우기로 했던 베릿이라는 소년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날부터 시작됐다. 베릿이 첩탐 바닥에 쓰러져 죽은 채로 발견되자, 앵글릿은 사고로 서둘러 정리된 조사 결과와 달리 이 죽음이 살인이라는 사실을 직감한다. 그런데 베릿이 죽은 그 날 밤, 바-셀렘에서 충격적인 도난 사건이 발생한다. 도시의 경제를 지탱하는 신비한 광물인 '비컨'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도시 전체가 충격에 빠져 비컨의 행방을 찾는 데 골몰하지만, 앵글릿에게는 베릿이 죽은 이유를 밝히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나 한낱 흑인 청소부의 죽음 따위에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진실을 파헤쳐 억울하게 죽은 베릿의 원한을 풀어주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답답해하던 앵글릿의 앞에, 젊은 정치인 조사이어가 다가온다. 그는 베릿의 죽음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앵글릿의 말에 동의하면서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선뜻 제의한다. 그는 왜 베릿의 죽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앵글릿은 석연치 않았지만, 범인을 잡아야겠다는 열망으로 그의 제안을 수락한다. 그 날부터 앵글릿의 삶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간다.

도시의 귀중한 재산을 훔쳐간 도둑, 수상한 죽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음모를 파헤치는 사람들

바-셀렘은 룩소라이트라는 귀중한 광물을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사업으로 세워진 도시였다. 아주 작은 조각 몇 개만 있으면 아파트 한 동 전체에 필요한 전기를 수백 년 동안 만들어낼 수 있

을 만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보유한 록소라이트는 도시의 생명줄이고, 이번에 사라진 '비컨'은 현존하는 가장 거대한 록소라이트다. 그런데 값어치를 따질 수도 없는 이 비컨이 사라진 날, 록소라이트를 사고파는 무역업자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업가도 목숨을 잃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지만 범인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 앵글릿은 자신을 도와주는 조사이어가 도시 전체의 관심이 집중된 이 비컨 도난사건과 베릿의 죽음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다고 의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앵글릿이 최정예 스파이가 되어 지하세계를 넘나들며 필요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과 교육 기회까지 제공한다. 앵글릿은 조사이어가 이끄는 대로 훈련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전혀 느껴본 적 없는 묘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이제 겨우 인생에 목표를 설정하고 정체성을 찾는 것이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지 어렵פות이 깨달아가던 앵글릿에게 치명적인 위험도 동시에 찾아온다.

비컨의 행방과 도둑에 대한 소문은 날로 무성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수상한 이유로 목숨을 잃는다. 앵글릿은 오만하기 작이 없는 조사이어의 여동생과 모르는 것이 없는 신문사 여기자, 마음 착한 목동의 도움을 받아 도시 깊숙이 얽히고설킨 음모의 고리를 따라간다. 그 안에는 돈과 권력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다. 도시 전체의 운명이 앵글릿의 손에 달려 있다.

식민지배는 끝이 났지만 극과 극으로 갈린 계급 차이가 존재하는 19세기 가상의 도시를 배경으로, 살인과 음모라는 소재로 사회적인 문제를 날날이 파헤친 독특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A. J. 하틀리(A. J. Hartley)는 『Darwen Arkwright』 시리즈와 판타지 모험 소설 시리즈 『Will Hawthorne』 등 고고학적인 소재를 토대로 한 스릴러 소설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대열에 올랐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셰익스피어 작품을 가르치고 있다.